

한일전 선발 누구?...차우찬 · 양현종 사이에서 고민할듯

오늘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멕시코전 선발 박종훈 유력

믿었던 김광현 대만전 무너져 완패...내일 일본전 '중요'

대만전 충격패로 김경문호의 마운드 운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베일에 싸여 있는 한일전 선발투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2일 일본 지바현 조조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대만과 경기에서 0-7로 완패, 대회 4연승을 마감했다.

슈퍼라운드 전적은 한국이 2승1패, 대만이 1승2패를 기록 중이다. 13일 미국을 2-1로 꺾은 호주는 1승3패, 대만과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설 수 있는 한국으로서 15일 멕시코전, 16일 일본전을 앞두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만전에서는 믿었던 김광현이 3¼이닝 8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진 것이 완패로 이어졌다. 그만큼 단거리에서는 선발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멕시코전, 일본전 선발

로 누가 마운드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먼저 15일 멕시코전에는 박종훈의 등판이 유력하다. 박종훈은 멕시코 타자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언더핸드 투수다. 지난 8일 쿠바와 예선라운드 마지막 경기에도 선발 등판, 4이닝 무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으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16일 일본전 선발투수는 예상치 못하다. 멕시코전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발 로테이션만 놓고 보면 차우찬, 양현종의 등판 가능성이 높다.

소속팀 LG 트윈스에서 선발로 뛰고 있는 차우찬은 이번 대회 2경기에서 모두 중간계투로 등판했다. 7일 캐나다전 1이닝 2볼넷 무실점, 8일 쿠바전 ¼이닝 무실점 등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전까지 휴식 시간도 충분하다. 그러나 차우찬의 경우 15일 멕

시코전에 다시 불펜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존재해 쉽게 한일전 선발투수로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대표팀에는 믿음만한 좌완 불펜 요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우찬이 아니라면 양현종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질 수도 있다. 양현종은 6일 예선라운드 호주전(6이닝 1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 11일 슈퍼라운드 미국전(5¼이닝 10피안타 2볼넷 1실점)에서 연이어 호투를 펼쳤다.

하지만 양현종에게는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 16일 일본전을 책임지려면 또 다시 4일 휴식 후 등판을 소화해야 한다. 2경기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은 KBO리그 정규시즌 때도 거의 나오지 않는 선수 기용이다.

이번 대표팀에서 불펜의 믿음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영하도 소속팀 두산 베어스에서 올 시즌 17승을 거둔 선발투수다. 이영하는 11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한국 야구 대표팀의 좌완 투수 차우찬과 양현종.

일 미국전에서 1¼이닝(무실점)만을 소화했기 때문에 16일 일본전 등판이 부담스럽지 않다.

단, 아직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이영하에게 한일전이라는 큰 경기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

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의 좌완이 일본에 강했다는 점에서 우완인 이영하보다는 좌완인 차우찬, 양현종의 등판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전 결과가 중요하다. 김경문 감독도 대만전 패배 후 "멕

시코전부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다"며 "그 다음이 일본전이라 걱정을 미리 하지 않으려 한다. 멕시코를 이겨야 다음이 있다"고 당장 한일전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멕시코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즌 두 자릿수 득점’ 전남 바이오, K리그2 36R MVP

이적 4개월만에 16경기서 10골

K리그2가 지난 주말 1년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 라운드 MVP로 전남 드래곤즈의 바이오가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하나원큐 K리그2 2019' 36라운드 MVP로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바이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 9일 전남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6라운드에서 바이오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안산을 2-1로 꺾었다. 전남은 이날 승리로 시즌을 6위로 마무리했고, 안산은 부천에 뒤지며 5위로 떨어져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바이오는 관심을 모았던 안산 그리너스와 부천 FC의 준플레이오프 싸움에 멀티골로 찬물을 끼얹었다.

바이오는 이날 안산을 상대로 후반 18분 타점 높은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후 후반 39분 정재희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날 정재희는 도움 1개를 추가해 시즌 10호 도움으로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다.



바이오는 지난 7월 여름 이적시장에서 전남 유니폼을 입은 뒤 4개월여 만에 16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는 순도 높은 득점력을 발휘하며 다음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뉴스1

‘타율 0.167’ 박병호 “핑계대지 않겠다...노력하는 수밖에”

“잘하지못해 속상해”

부진에 빠진 김경문호 4번타자 박병호가 “핑계대지 않겠다”며 반등을 다짐했다.

박병호는 현재 슈퍼라운드가 진행 중인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출근팀의 4번타자로 출전 중이다. 5경기 성적은 타율 0.167(18타수 3안타). 박병호의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특히 0-7로 패한 지난 12일 슈퍼라운드 대만전에서는 몇 차례 중요한 찬스를 놓치는 등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대만전 종료 후 일부 팬들은 박병호의 타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

다.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공식훈련을 갖고 15일 열리는 멕시코전을 대비한 대표팀. 박병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한 뒤 잠시 인터뷰에 응했다.

박병호는 “컨디션 핑계는 대지 않겠다.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하다”며 “내가 못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대만전 패배에도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 박병호는 “분위기가 차지지는 않았다”며 “이번 대회에 이번이 많다. 우리도 못 쳐서 진 것인데, 만회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경문 감독은 박병호를 향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박병호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한다는 칭찬도 했다.

이에 박병호는 “다들 잘하고 싶은 마음 뿐인데 잘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만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노력을 강조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